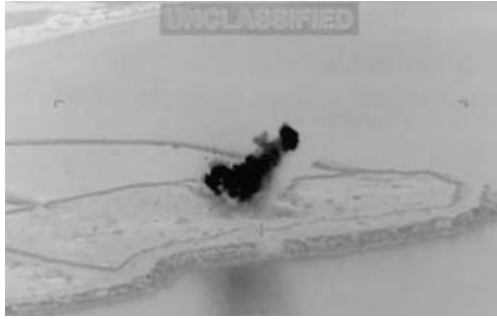


호르무즈 긴장 악화...이란 자폭드론 날리자 미군 즉각 대응

중전협상 교착·불안정한 휴전 속 제한적 군사행동 되풀이
이란, 주변국 공격...“쿠웨이트, 방공망 가동해 공습 요격”

미군과 이란이 중전협상 교착 속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한적인 군사행동을 되풀이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방금 전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자폭형 드론 4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6일(현지시간) 이란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 타격 공개 영상 일부.

중부사령부는 “이 드론들은 역대 해상 교투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했다”며 “이에 따라 미군은 추가 공격에 대비한 방어 차원에서 이란 고루크와 계습섬에 있는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부사령부 엑스 게시글 화면 캡처=연합뉴스

그러면서 “미군은 계속해서 경계를 유지하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의 부당한 공격 행위에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방송은 이란군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로이터 통신은 쿠웨이트 방공망이 이날 미사일-드론 공격을 요격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쿠웨이트 국영 KUNA 통신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최근의 공격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4월 체결한 휴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 군 참모본부는 이날 이 밝히면서 시민들이 들은 폭발음은 방공 시스템이 목표물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은 양측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있지만 휴전 위반을 이유로 전쟁을 재개하려는 등 강경한 반응은 내보이지 않고 있다.

이윽고 시민들이 당국이 발표하는 안전·보안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한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본격화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쿠웨이트는 자국을 향한 공격의 주체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쟁 국면과 최근 사례로 미뤄볼 때 이란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교전이 격화할 위험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지난 3일 쿠웨이트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드론으로 공격해 1명을 죽이고 수십 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공항 운영도 일시 중단됐다.

군사적 충돌에 따른 긴장과 불안 악화로 좌초 위기까지 관측되는 중전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더 작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란 국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바퀴벌레 자나타당(Cockroach Janta Party) 시위에서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도 ‘Z세대 분노’...팔로워 2천200만 ‘바퀴벌레국민당’ 첫시위

뉴델리서 의대 입시문제 유출 규탄

최근 인도에서 대법원장의 모욕적 발언을 계기로 출범한 Z세대(1995-2007년생) 온라인 단체가 처음으로 거리 시위를 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AP·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청년 정치운동 단체인 이른바 ‘바퀴벌레국민당’(CJP)은 전날 오후 수도 뉴델리 의회 인근에서 시위했다.

시위 참가자 수백명은 지난달 인도 전역에서 220만명이 응시한 의대 입학 국가시험을 앞두고 문제가 유출된 사건을 규탄했다.

일부는 종이로 만든 바퀴벌레 가면을 쓴 채 다른 멘트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CJP 지지자들은 “바퀴벌레들이 온다, 다른 멘트라 프라단(교육부 장관)은 물러나라” 등

의 구호를 외쳤다.

CJP는 성명에서 1주일 안에 프라단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그를 해임하라고 주장하면서 “그사이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이번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최 측은 인도 국기와 책을 들고 집회에 참여해 달라고 공지했고, 이는 모든 이들의 교육권과 평등한 기회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만시 세갈(26)은 AP에 “시험 문제로(시위가) 시작됐지만, 더 근본적 문제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질문할 공간이 그동안 없었다는 사실”이라며 “CJP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P는 최근 몇주 동안 소셜미디어(SNS)와 현지 뉴스 제목을 장악하며 인도 Z세대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이 단체가 거리 정치

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앞서 CJP는 실업 상태인 젊은이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수리아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하루만인 지난달 16일 만들어졌다.

이후 인도 Z세대가 이 단체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SNS 인스타그램의 CJP 계정 팔로워 수는 2천200만명까지 늘었다.

이는 자칭 세계 최대 정당이라는 인도 연방의 회 집권당 인도국민당(BJP)의 팔로워 수인 880만명의 3배 가까운 수치다.

CJP를 만든 미국 보스턴대학교 학생인 인도 국적의 아비지트 답케(30)도 최근 귀국해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로이터에 칸트 대법원장의 발언 때문에 단체 이름을 CJP로 지었다면서 “이것은 인도의 정치적 담론을 바꾸려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오늘 방북...김정은과 각 의제서 ‘전략공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열기로 함에 따라 두 정상이 논의할 각종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두 정상의 대면 회동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전통적인 우호를 재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 협력과 외교·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전략 경쟁, 북러 밀착 등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중 관계의 현재 위치를 재

점검하고 미국에 맞선 북중러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시도 등 향후 협력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북중 동맹의 전략적 복원과 미국에 맞서기 위한 북중러 연대 심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담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고 전략적 협력의지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성명이나 공개발언에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 일방주의 반대, 국가 주권 수호 등의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일본 아스카·후지와라 세계유산 등재 유력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고대 유적인 ‘아스카·후지와라 궁도(宮都)’가 유네스코 자문기관의 권고를 받아 등재가 유력시된다고 NHK 등 현지 언론들이 6일 전했다. 혼슈 서부 나라현에 있는 아스카와 후지와라는 고대 일본 수도였다. 아스카 시대는 보통 592

년부터 도읍이 나라이 헤이조쿄(平城京)로 옮겨진 710년까지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이 중국, 한반도와의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고대 일본에서 중앙집권 체제가 성립하게 된 과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고고학적 유산이라고 보고 ‘세계유산 아스카·후지와라 등재 추진 협의회’를 꾸려 등재를 추진해왔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아스카·후지와라 궁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에 어울린다는 등재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유산은 다음 달 19일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